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34호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 안내

2021년 9월 24일(금) 오후 4시

주제 : 팬데믹 체육인 고용실태와 문제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만 열리는 전국체전...체육계는 정상 개최 요구

이승재 KBS 기자

‘반쪽’ 전국체전, 도쿄는 되고 구미는 왜 안되나

김교성 디지털 논설위원

스포츠학폭·비리

양궁 학폭 가해자 ‘영구 제명’ 징계...”양궁계 퇴출”

강병서 뉴시스 기자

“스포츠 공정성, 객관성 훼손”... ‘승부조작’ 윤성환 ‘징역 1년’

이성덕 더팩트 기자

기타 스포츠 뉴스

“언제 다시 운동하냐”...코로나 19 장기화에 사라지는 스포츠 동호회

대학 체육학과 중도이탈 심화... “스포츠 산업 대응 커리큘럼 도입해야”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스포츠는
인권이다

체육시민연대

CNet 포럼

주제

팬데믹 체육인 고용실태와 문제점

○ 일시 : 9/24(금), 오후 4시 ~

○ 방식 : 실시간 온라인

ZOOM = <https://cau.zoom.us/j/89920765530> YouTube = <https://youtu.be/m13gTPR4uoQ>

◇ 사회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발제

정현우 | 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 토론

여준형 |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김희진 |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양민석 |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고등부만 열리는 전국체전... 체육계는 정상 개최 요구

제102회 전국체전을 3주 앞두고 체육 단체는 정상 개최를 요구해온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국체전을 고등부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부는 대규모 체육 행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만 개최하기로 했다"며 전국체전 축소를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체전은 2020년 대회 취소에 이어 2021년 대회는 인원을 축소해 진행하게 됐다.

제102회 전국체전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 체전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체전 개최를 3주 앞둔 상황에서 축소 진행을 발표하면서 참가인원 급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체전 축소를 결정한 방역당국과 달리, 체육단체는 전국체전 정상 개최를 요구해왔다. 연중 가장 큰 대회 중 하나인 전국체전 규모를 축소하면 스포츠계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사전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학 일반 선수를 제외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실업 선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실업 선수들은 전국체전 성적이 재계약 여부를 비롯한 선수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선수를 평가할 기준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14일 전국체전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전라북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스포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거꾸로 읽는 스포츠]

'반쪽' 전국체전, 도쿄는 되고 구미는 왜 안되나



김교성 디지털 논설위원

체육인들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전후 시기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사회, 경제, 문화, 학계 등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이들은 체육인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스포츠로 불리는 여러 운동 종목을 도입하고 선수 육성과 대회 개최 등 체육 발전에 앞장선 것이다. 이는 국내 체육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학교 체육과 사회 체육으로 나눠 경쟁하며 주체성을 갖고 스포츠 발전을 이끌었던 체육인들의 존재감은 어느 날부터 무뎌지기 시작한다. 5·16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다. 민간인 회장 체제의 지방 체육회는 시장과 도지사가 회장 자리에 앉는 관권 체제로 전환된다. 경상북도체육회 예를 들면 민선 체육회가 잦은 분란 끝에 경북도지사에게 체육회장 자리를 맡아 달라며 갖다 바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체육인들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전후 시기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사회, 경제, 문화, 학계 등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이들은 체육인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스포츠로 불리는 여러 운동 종목을 도입하고 선수 육성과 대회 개최 등 체육 발전에 앞장선 것이다. 이는 국내 체육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학교 체육과 사회 체육으로 나눠 경쟁하며 주체성을 갖고 스포츠 발전을 이끌었던 체육인들의 존재감은 어느 날부터 무뎌지기 시작한다. 5·16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다. 민간인 회장 체제의 지방 체육회는 시장과 도지사가 회장 자리에 앉는 관권 체제로 전환된다. 경상북도체육회 예를 들면 민선 체육회가 잦은 분란 끝에 경북도지사에게 체육회장 자리를 맡아 달라며 갖다 바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후 전국의 지방 체육회는 알려진 대로 2020년 민간인 회장 체제로 복귀할 때까지 시·도 행정기관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돌아선 뒤에는 사실상 시장, 도지사의 선거 단체로 전략한 상태였다.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지방 체육회를 이끄는 사무처장 자리에 퇴직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임의단체로 운영했다. 살림을 맡은 사무처장은 체육인들을 들러리 삼아 이사와 감사를 뽑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지자체에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기에 체육회는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지방 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의 치적이 되는 전국체육대회 성적 올리기에 몰두했고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에 관심을 뒀다.

체육회가 2016년 엘리트와 생활 체육의 통합을 추진하고 지난해 회장 선거를 통해 민간인 체육회 시대를 다시 열었지만, 체육인들이 들러리 처지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오는 10월 8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막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등부만 치르는 반쪽 대회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01회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대회 자체가 취소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2021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대규모 체육 행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전국체전은 고등부만 개최하도록 한다. 대회 방역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 장 계속



지난 8~13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일반부 경기가 사전에 열린 대구 안심하키경기장.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거치며 대회 관계자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구시하키협회 제공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많다. 애초에 체육인들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일반부 경기 취소 확정시기도 너무 늦었다. 하키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이미 사전경기를 통해 우승팀과 시도 순위까지 가려진 상태다. 체육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다.

이번 전국체전 일반부와 대학부 취소는 지난 14일 한 언론사 기사를 통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등부 대회만 열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한체육회에 이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가맹 회장단과 경기단체 등을 통해 바로 반발했다.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제102회 전국체전 정상 개최를 바라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한 전국체전이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스포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위드 코로나'를 여는 첫 단추로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대회 시작 48시간 전과 사흘에 한 번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인원 분산을 통한 최소 인원 대회 운영,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등을 약속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는 지난 15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정상 개최 요구 성명서를 냈다. 연합회는 "전국체전은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쉬지 않고 매년 개최됐다"고 했다. 연합회는 "우리 경기단체들은 철저한 방역시스템으로 지난 2년간 수많은 대회를 개최한 노하우가 있다"며 "올해 전국체전 개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체육인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체육인들은 정상 개최가 관철되지 않을 땐 총리실,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려진 전격적인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하는 처지다.

전국체전 개막 21일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정부 결정에는 책임 회피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체전 취소로 인한 체육인들과 체육 단체의 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체전 전체 참가 인원의 40% 정도 되는 고등부 대회만 하면 코로나19 방역이 저절로 되는가. 이미 하키 등 일부 종목은 사전경기를 했지만, 방역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정부 논리라면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개최한 도쿄 올림픽은 열리지 못할 대회였다. 우리나라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게 당연한 논리다. 정부의 사실상 전국체전 취소 방침에 대해 방역을 핑계로 한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경북체육회, 양궁 학폭 가해자 '영구 제명' 징계... "양궁계 퇴출"

경북 예천중학교에서 발생한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북체육회가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폭력 사건을 무마 또는 은폐하려고 한 양궁부 코치와 전 경북양궁협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1년의 징계 처분을 했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 결정을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지난달 4일 3m 거리에서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쏘 상처를 입혔다. 화살은 피해 학생의 옷을 뚫고 들어가 등에 1cm 가량 상처를 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이 학교 양궁부 코치 A씨와 사건을 덮고 무마하려고 한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된다.

경북체육회 징계와 별개로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 양궁부 코치는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스포츠 공정성, 객관성 훼손” ... ‘승부조작’ 운성환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성환(40)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승부 조작한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운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성환(40)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작년 9월 21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에 한 카페에서 공모자 B씨와 함께 '주말 야구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의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익을 나게 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며 C씨에게 요구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삼성라이온즈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조작경기에 베팅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윤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했고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건전한 여가 증진과 스포츠정신 함양에 이바지해야 할 프로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프로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큰 이유는 그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볼 피수 있는데, 누군가가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승부조작을 하는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이 개인의 모든 명예, 경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언제 다시 운동하나”... 코로나19 장기화에 사라지는 스포츠 동호회



한적한 한강 하구 고양시 평화누리자전거길. /© 뉴스1

“벌써 1년 가까이 운동장에 나가질 못해 답답하고, 이러다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으니 올해 안에는 회원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사회인야구 동호회원인 운동진씨(44·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회원들이 직장인·자영업·공무원·군인 등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전인 올해 초부터 회원들이 하나둘씩 이탈해 정상적인 팀을 꾸리기조차 어려워졌다.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윤씨는 “누구는 ‘사적모임 금지 위반하면 직장 내에서 징계받는다’, 누구는 ‘코로나19로 가게가 어려워 당분간 나올 수 없다’ 등 다양한 이유로 한두 차례 모임이 무산되더니 결국 연말이 다가올 때까지 친선경기 한번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평범한 삶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린 코로나19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온 여가·취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들면서 각종 동호회들마저 하나둘씩 활동저조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라지고 있다.

조기축구 회원인 직장인 방모씨(45·파주시)는 “사적모임 금지에도 야외 활동인 축구는 올해 초까지 할 수 있었지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고 난 뒤 금지되면서 이제는 회원들끼리 전화로 안부만 묻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올 연말 모임 총회도 못할 판”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58)도 “매출의 상당부분을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기여했는데 이제는 야외 모임도 금지되다 보니 주말 매출은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야외 운동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의 경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지자체들의 경우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대관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사설 운동장들의 운영을 강제 중단했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연중 리그가 지난여름부터 사실상 모두 ‘올 스톱’ 상태다.

이에 “운동장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다음 장 계속

— 청원진행중 —

코로나-19로 인한 동호인 야구장 운영건

참여인원 : [5,081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시작 2021-08-17	청원마감 2021-09-16	청원인 kakao-***
------------------	-----------------	-----------------	---------------



청원내용

경기도 고양시에서 야구장을 운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야구장 운영이 중단되어
충분히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야구장을 운영한다고 밝힌 청원인은 “4인 미만이 입장하는 실내스포츠는 운영을 허용하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도 쓰고 운동하는 야구장은 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방역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달 17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한편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의 특성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운동을 마친 후 단체 식사자리도 갖기 힘들어 친목도모조차 쉽지 않다. 동호회 임원진들 입장에서는 회원들 관리가 힘들어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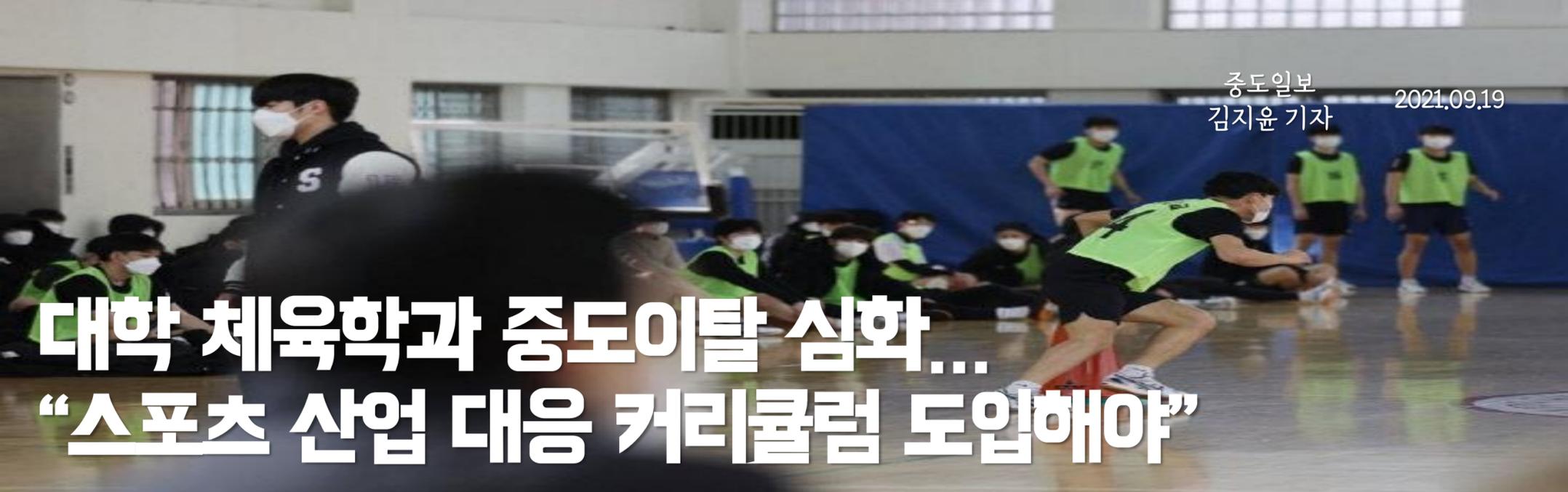
배드민턴 동호회의 총무인 임모씨(37·파주 운정)는 “전에는 모임(운동)이 끝난 후 단체로 식당에 모여 뒤풀이를 통해 서로 안부도 물으며 회의도 했지만 이제는 6명(접종완료 4명 포함)까지 완화된 상황에서도 인원을 쪼개 다른 식당에서 뒤풀이를 한다. 지난달 신입회원이 들어왔지만 환영식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구 동호회원인 조모씨(38·고양시)는 “경기 후 친한 회원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생각해 보니 8명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식당에 입장한 자체부터 어리석었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모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비만 내고 운동을 못하다 보니 최근 동호회를 떠나는 회원들도 늘고 있다.

지역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운동을 접었다”며 테니스·볼링·야구·축구 등 자신의 운동장비를 판매한다는 글이 부쩍 늘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운동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올해 안에는 각종 체육시설을 재가동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체육학과 중도이탈 심화... “스포츠 산업 대응 커리큘럼 도입해야”

체육을 전공하는 지역 대학생들의 중도 이탈이 심화되며 지역 체육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대학의 중도이탈이 증가하는 가운데, 체육학과의 중도이탈률은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다.

19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남대의 중도이탈 학생비율은 평균 5.3%을 기록한 가운데 체육학과의 중도이탈 비율은 이보다 두 배를 넘는 10%를 기록했다.

다른 대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건양대의 체육학과의 중도이탈 비율은 8.5%로 평균 4.5%를 넘어섰고, 대전대 체육학과 중도이탈 비율도 8.5%로 평균 4.8%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중도이탈 평균 비율이 6.1%을 기록했던 한밭대는 체육학과 이탈률이 9.8%, 충남대 체육학과의 중도이탈 비율은 3.7%로 평균보다 0.7%p 높았다.

이렇게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체육학과를 빠져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체육과를 졸업하면 전공분야의 선수로 활동 하거나 체육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프로나 실업팀 선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소수의 학생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 지도자로의 취업도 만만치 않다.

전문체육 지도자는 시나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의 전담 코치나 감독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들이 학생 수급의 문제를 겪고 있어 이들 전문 지도자들이 갈 곳도 좁아졌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체육회 소속의 생활체육 지도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급여가 낮아 취업에 한계가 있다.

취업의 문턱이 높고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중간에 학과를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옮겨 가는 것이다.

이 같은 중도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대학의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많은 대학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체육학 관련 중심의 커리큘럼을 스포츠 산업 등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정부의 체육정책이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스포츠 저변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많은 체육인 양성도 필요하다"며 "다만 과거 같은 전통적인 체육학보다는 스포츠 산업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와 결합한 교과과정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교과서'에 이의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160300045>

'韓 체육 초유의 압류 사태' 테니스협회, 45억 빚더미 어떡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625009>

탈레반, 스포츠 400개 허용...여성 스포츠는 "물지마라"

<https://www.news1.kr/articles/?4435614>

[칼럼]선수들에게도 테니스는 '신사의 스포츠'로 느껴질까?

https://www.tennis.co.kr/tkboard/tkboard_view.php?seq_no=32465&category=internal

[30초뉴스] '스포츠 금지' 탈레반 손아귀서 탈출... "제3국 망명 신청"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916006500640?did=1825m>

'서울올림픽 33주년' 체육진흥공단, 올림픽 가치 확산 비전 선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7_0001588109&cID=10501&pID=10500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 존중 표어 공모전' 개최

<http://mksports.co.kr/view/2021/903291/>

5개 체육기관 체육계 혁신협의체, 기관 순회 청렴캠페인

<https://www.mhnse.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52>

[배우근의 롤리팝] 밥그릇은 무엇으로 지키는가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63877?ref=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